

龍丘文化

1986. 12. 31

第 9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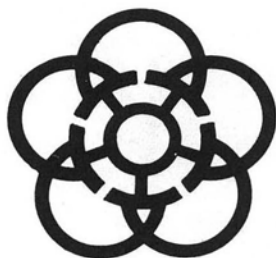


龍仁文化院

龍仁文化

1986. 12. 31

第 9 號



龍仁文化院

군 민 헌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차례

머 리 말	문화원장 김 정 근	5	
美術寫生實技教育의 重要性	李 相 鶴	7	
공구문단 <수필>..... 한 해를 돌아보며	박 상 돈	9	
<시>..... 오늘은	이 길 호	13	
나	노 영 미	14	
겨울뿌리	임 준 규	15	
만남	박 상 돈	16	
용인문화원주최 제 1회 경로효친사상선양글짓기공모전			
최우수작 ...경로우대증	제일국교 5-1 정승교..	18	
제 11회주부백일장 최우수작 ...가을	용인군기흥읍상갈리 최순순..	20	
제 1회최소년백일장 최우수작 ...하얀눈하얀토끼 ...	서룡국교 4년 신동선..	22	
꽃 꽃 이	오 민 근	28	
학교순례	남사중학교	24	
연수원 탐방	대한지적기술연수원	29	
시명유래	정 양 화	31	
민속놀이	재돈음	하 주 성	33
詩 輯	言論界의 先覺者 石儂 柳瑾(下) 박 용 의	39	
옛 문헌속의 용인(7)	홍 순 석	44	
용인금석유문자료(4)	홍 순 석	45	
사발통문		49	
용인문화원 소식		55	
表紙說明		63	
편집후기		64	

머릿 말

용인문화원장 김정근

어느새 벌써 86년도 12월 중순으로 접어 들었다. 한해도 빼놓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 지난해의 후회와 새로운 해의 각오이지만 이것도 매년 하다보니 생각하는것조차도 쑥스러워서 혼자 낯을 붉혀본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도대체 지난해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반성과 후회를 매년 하는것일까 꼼꼼히 생각에 잠겨본다.

사회가 나를 지금의 나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지금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잘못을 사회에 돌려 놓을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탓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먼저 나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야 사람의 도리라 생각이 든다. 얼마나 내가 내 자신에 충실했는가?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리만큼 생활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다. 타인에게는 우습게 하잘것 없이 보일지라도 주인공인 나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하는지? 만약 확신한다면 그것이 내자신의 능력의 전부라고 믿고 만족해야 하며 사회적 성취도 따위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할것이 아닌가. 오늘에 결과는 그럴듯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오늘 이 순간에 전부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며 어제는 그제의 연속이다. 그제의 열매가 어제 결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은 마땅히 어제의 연속이며 결실이라고 귀결짓게 된다. 따라서 그제의 바탕이 어제이고 어제의 바탕이 오늘이라고 볼 때 오늘이 좋아야 내일이 좋아진다는 결론이 내려지며 오늘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강조되어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내일에 후회와 반성이 없어진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딸을 알려거든 그 모친을 보라는 말대로 모친의 성품, 교양, 품위, 교육, 생활태도 등은 물론 모친의 음식 솜씨까지 들먹이게 된다. 한 가정의 딸은 그 집에서 출생하고 자라는동안 그집의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바탕이 되어 오늘의 그말이 있기 때문에 딸을 알려거든 어미를 보라고 한것 같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좋은 원인이 바탕이 되어야 좋은 결과 즉 결실을 얻는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한다면 시험전에 열심히 공부하여 충분한 준비를 해야한다.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바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바탕은 마

~~~~~

런되지 못하고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혔을 때 그는 서슴없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 것이다. 노력없이 좋은 성과만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땀의 땀가로 얻어야 되는 빵을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는 것이며, 이것은 도적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의 산물이며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라고 생각을 연장하다보면 오늘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흔히 우리는 습관적으로 잘못을 남에게서 찾아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실제 그 책임은 오늘의 현실을 만든 나에게 있다고 함이 마땅하다.

사람에 따라서 책임을 질수 있는 범위가 양적 질적으로 각각 다를 것이다. 어떤이는 한 가정의 책임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정은 물론 사회에도 져야될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이는 국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책임은 물론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책임에 해당하는 만큼에 권리가 수반되도 물론이다. 권리있는 곳에 책임있고 책임있는 곳에 권리가 따라 다니게 된다. 이 책임을 완수하게 될 때 사회전체의 기능은 부족함이 없이 원활해진다. 어떤 지도자가 자기나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는 감당치 않고 권력행사만을 한다면 인격자로서의 대접을 받기가 어렵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될 것이다.

새해를 맞으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젊어져야 할 부분의 책임을 지고 사심없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얼마나 명랑한 사회가 될까.

김수환 추기경의 로마발언중 「욕심에 대한 마음을 비우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되씹어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치는 나에게 영광은 우리에게」라고 하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새해에는 적용해 보리라 마음 먹어본다.

# 美術寫生實技教育의 重要性

— 靑少年 美術實技大會의 意味 —

李 相 鶴

毎年 文化院이 실시하고 있는 靑少年 미술실기대회의 행사가 갖는 뜻은, 靑少年 文化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써의 의미와 더불어 靑少年들의 文化의식을 고취시켜 선진조국의 밝은 미래를 예술문화로 꽃피우고자 하는데에 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藝術文化的 發達은 곧 人間과 社會發展의 토대가 되는 것임으로 靑少年기의 美術教育은 全人教育의 基本으로서 情緒의 發達 개성발휘와 創意力을 낳는 지적 정신교육과 창조적인 예술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미술사생활기는 현장교육으로서의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現場에서의 실험적 실기작업으로서 일상 生活周邊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올바르게 구체적으로 갖는 감정의 의식수준을 일깨우고 발전시켜 가는데에 실제적인 대상체험 교육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살고있는 자연속의 마을 환경, 날로 변모해가는 여러 모습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간의 삶의 형태속에서 기쁨과 슬픔, 정돈과 무질서 등에 대하여 실제로 보고 느끼는 감정의 의식기능을 발전시켜 한걸음 더 나아가 고상한 마음의 활동으로 전개시켜 감정으로 하여금 文化的 가치를 가지고 모든 對象物을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끄는 훈련을 통해서 고상한 정신적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며 인생의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을 키우는 실습교육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感情의 발달에는 情緒의 기초적인 요소가 前提되어야 하는데 그 정서를 발생시키는 교육의 기초가 바로 현장 실습교육이 될 것이다.

그 사생활기가 바로 그 정서를 발생시키는 현장의 요소적 일면의 대상이 되는 즉 현장의 실제의 사물을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느끼는 감정의 의식을 깨우치는 훈련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환경들의 대상을 통하여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을 가질 때 자신



의 의식은 날로 발전하여 수정과 창의력이 짝뜨게 되는 것이다.

내고장 내이웃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도 갖게되고, 불행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갖게 되며, 불결한 곳을 보면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줄알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지혜가 짝뜨게 되는 것이다.

이런것은 질서의식과 도덕심도 일깨워 준다.

어른에게 공손할 줄 알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키워지게 되는 것이다.

사생의 중요성은 사실 그대로를 공간에다 옮기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을 길러주며 이해와 창조적 창작기능을 낳게도 되며 또한 체험도 되는 것이다.

어느 한장면을 사생하는 것은 곧 그 곳에 대한 산 체험이 되는 것이다.

많은 여러 곳과 대상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석 구석 장면장면들을 두루 관찰하고 실사하는 것은 비록 청소년의 감정은 어른에 비하여 未熟하지만 어른들이 人生을 오래 살면서 경험한 것만큼 일찍부터 많은 경험을 하게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이와같이 사생실기는 바로 체험실습이 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면 늘 사생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을 대하고 인생의 삶을 배우는 실제의 산교육인 것이다.

문화원의 사업으로 청소년 교육의 한 측면의 일부를 담당하여 실시되는 미술실기대회가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치루어 진다는 의미를 초월한 教育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음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내고장의 文化를 꽃피울 자랑스러운 인재육성에 큰 역할이 되는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 바이다.





가장 갈망하는 것.

가장 얻고 싶은 것.

가슴 저미는 이별 앞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서도 그 것을 버려둔 채 여  
녀 날처럼 다시 고풍 배를 채우기 위해 식사를 하고 부딪히는 모든 것을 만나  
야 하는 생활이 참으로 이상스러웠다.

인생의 순간 순간의 바램을 성취시켜줄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거늘 우리는 왜 그것을 외면하고 평범한 대화속에 평범한 일을 먼저  
하게 되는지

죽음을 생각해 보았으나 그 것도 한낱 도피일 뿐 최선의 방책은 아닐성 싶  
었다.

죽음을 결행할 용기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어렸을 적에 그토록 어려웠던 수리(數理)가 나이들어 자연스레 알게 되듯이  
시일이 지나고 그런 의혹은 저절로 깨우쳐졌다.

모든 일은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한 알 곡식을 얻으려면 먼저 땅을 일구어야 하고, 하나의 조각품을 완성하  
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비범한 것도 평  
범속에서 잉태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면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냐고 물으면 사랑이라 답하  
겠지만 인간은 사랑없이 살아 갈 수 있어도 삶이 배제된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가까이는 부부나 애인, 부모와 자식들을 여의고 잃어버린 사랑으로 애통해  
하던 사람들도 누구나 점차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 아픔을 아몰려 가며 생  
활에 잠겨가게 마련이다.

그만큼 주어진 현실이 급박하고 삶이란 절실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생활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메마르고, 생활을 떠난 사랑은 공허로운 것.

요는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 삶속에 균형있게 사랑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냐이다.

내가 주어진 일에 급급하여,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이웃을 외면한 적  
은 없었는가?

내가 사랑에 몰두하여 해야 할 일을 버려둔 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꼭같은 일이라도 일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

이 더 즐겁고 보람스럽다.

꼭같은 사랑이라도 일을 떠난 사랑보다는 생활속에 가꾸어진 사랑이 더 희망 있고 신뢰스럽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일에대한 애착이 있고 능률이 오르는 법이다.

사람이 오가는 길목에서 차가운 바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 잃은 계절의 미각을 파는 과일장수를 본다.

웃이야 두름이 입었겠지만 한 겨울 바람에 어찌 춥지않고 발이 시리지 않을 수 있으랴.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과 보다 알찬 내일을 위해 웃음을 잃지않는 착한 그의 지가 대견스럽고 미더웁다.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빴던 한 해

나는 과연 일에 시달려 나의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고된 일과에 불만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

불만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현실을 싫어지게 하며 현실에 대한 싫증은 인생을 그르치는 씨앗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게 건강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니 새해에는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차분히 일해야겠다.

최고의 덕, 최고의 선, 최상의 지혜, 최고의 미, 그 어떤 것일지라도 생활을 통하지 않고 삶에 반영되지 않으면 무가치한 것.

그래 내년에는 비록 큰 변화없이 평범한 나날일지라도 그 평범한 생활의 발에서 나름대로의 꿈나무를 가꾸어 보자.

좀 더 거목이되어 꽃이 피면 벌 나비가 찾아오고 마침내 열매도 맺혀지게 되리니.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면 멀리 수은등 분빛 너머로 가만히 나를 응시하는 것들이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밝은 내일이 .....

올해여 안녕.

오 오 새 해의 밝은 태양이여!

그대의 따스한 몸으로 온 누리를 고무 포옹하라.

지금 우리들

은혜로운 우주의 섭리속에

신비한 생명으로 존재하느니



( 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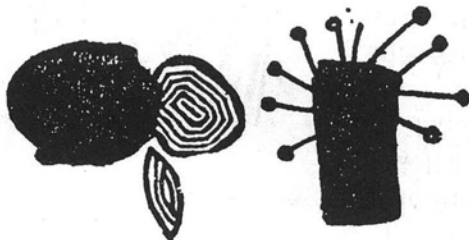
# 오늘은

이 길호

오늘은  
14줄의 소네트이다  
모든것을 담고 싶어지고

오늘은  
사작이란 단어 보다는  
마무리란 단어가 친근해지며

오늘은  
그리운 낱말들을 띄우며  
내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신선한 바람에게 인사한다.



( 詩 )

나

노 영미

역새꽃이 누리 —  
바람은 거기에서  
江으로 흐릅니다.

그 어느 것도  
되돌릴 수 없는 검은 노래  
아! 노을은 외지게  
내 기슭에서  
불타오르고 ……

이제  
裸木으로 결국 섰습니다.  
눈물로 영긴  
燈皮를 가슴으로  
뒹아내며

저 안 어디에선가  
퍼득이고 있는  
날개터는 소리를  
가만히 모읍니다.

가다립니다.  
눈이 내려 쌓이고  
겨울 바람이 머무는 언덕,  
그러나  
부활을 약속하는 푸른 자오선이  
있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소중한  
기쁨의.





( 詩 )

겨울 뿌리

임 준규

술병에 꽃을 꽃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서  
하나씩 하나씩 쓰러져 가요.  
어쩌면 소리도 못치면서  
낮게 베어지는지 몰라요.

쫓겨난 사람들이  
머리는 神殿에 떼어두고  
마지막 술집에서  
쉬운 自由를 마시고  
몸끼리 부딪치는 무모한 동네에서  
사랑을 해요.

추워지면 살(肉)이 그리워요.  
언땅에 누우면  
서로의 사타구니를 부등켜 안은 뿌리가 보여요.  
확인 하세요.  
가장 절실히 살아있다는 몸짓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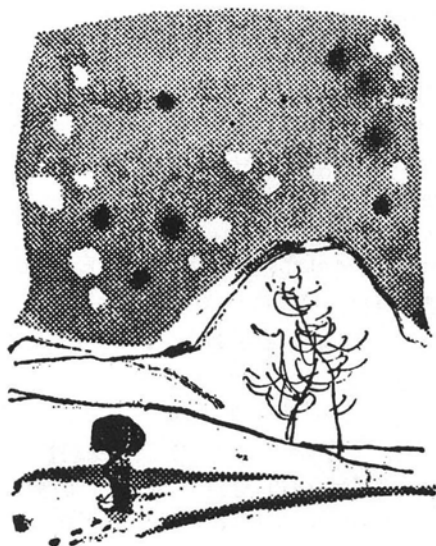
어두울수록 눈을 떠요  
우리의 은밀한 눈빛이  
우물 속 깊은 어둠을 흔들어  
뿌리를 적셔요  
우리의 뿌리를 다스려요.





오 오 千年을 산다고  
누가 우리 삶을  
人生이라 부르랴

우리  
힘겨운 산에서는  
바람으로 만나자  
고적한 들 길에선  
한 송이 꽃으로 만나자.  
서러움도록 외로운 날에는  
천리라도 가까운 그리움으로 만나도 좋으리



## 경로 우대증

제 일 국 민 학 교  
5의1 정 승 교

“할아버지 차비 주세요.”

“여기 있어요.”

“경로 우대증 있어요.”

“안가지고 왔는데…….”

“그럼 150 원을 내셔야 돼요.”

“이것 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내리셔요!”

“그래, 경로 우대증이 없다고 150 원을 받아?”

“그럼 어떡해요? 빨리 내려요!”

“못내려! 90원 밖에 없어. 이것이면 되잖아!” 경로 우대증을 잇고 가지고 오지 않으신 할아버지와 안내양 누나가 싸우고 있는 광경 이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운전사 아저씨께서 그냥 90원만 내시라고 하셔서 무사히 양지까지 갈 수 있었지만, 불일을 끝내신 다음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댁에 까지 무사히 가실수 있으실까?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이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나라라는 뜻이라고 배웠다. 우리 나라는 옛부터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스승님을 공경 했다.

늙은 어머니께서 겨울에 딸기가 먹고싶다고 하시자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구미호가 사는 동굴에는 한겨울에도 딸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딸기를 따기 위해 그 누구도 일씬 거리지 못하는 구미호가 사는 동굴에 들어 갔습니다. 그 곳에는 여러 명의 시체들이 목에서 피를 흘리며 나란히 누워 있었읍니다. 그 아들은 무서워서 얼른 딸기를 따고 있는데, 구미호가 사람 냄새가 난다고 두리번 거리고 나오다가 딸기를 따고 있는 아들의 뒷덜미를 붙잡고서 말했읍니다.

“너도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꼴이 되고 싶으나? 이 놈들도 내 딸기가 탐

이 나서 들어 왔다가 나에게 죽은 놈들이다.” 그러자 아들은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구미호에게 말했습니다.

“늬은 어머니께서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내 아무리 하잘것 없는 미물이지만 너 같이 효성이 지극한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딸기를 실컷 따다가 어머니께 드려라.” 하고 사라졌다. 아들은 딸기를 실컷 따서 어머니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신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모시자는 뜻에서 경로 우대증이 있지만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경로 우대증을 가진분들께는 버스가 서 주지도않는다는 보도를 가끔 보게 된다.

오늘 도덕 시간에 선생님께서

“자기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효도이다. 남의 부모에 대해서도 잘 섬긴다면 이것 또한 효도와 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모시자고 만든 ‘경로 우대증’의 뜻 대로 받들어 모시는 명랑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가 을

용인군 가흥읍 상갈리  
최 순 순

“할머니 아줌마 저 왔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저 모르시겠어요? 수진에미예요.”

“엥? 수진에미가 왔다고?”

팔순이 넘으신 꼬부랑 할머니가 돋보기가 두개나 겹쳐있는 안경 너머로 예나 다름없이 합죽한 입을 연신 오물거리시면서 다시 확인 해 볼양으로 안경을 벗으시고 옷소매로 안경알을 닦으신다.

주름살에 덮여 더 작아진 두 눈엔 흰 자위와 검은 동자가 점점 퇴색해 비스듬한 색으로 보이는 눈을 몇번 씩이나 꺾벽 거리시더니 보기에 도 어지러운 안경을 다시 쓰신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 바쁘데 어떻게 왔수?”

“네 할머니가 보구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잘 왔네, 올해는 왜 안오나 했었지, 큰 애가 열 세살이 됐지?”

할머니 기억력이 아직도 대단 하시다.

그러니까 그때가 할머니 칠순 잔치 끝나고 며칠후에 난 첫딸을 낳았으니까.

그래서인지 우리 애 나이를 번번히 와도 대번에 잘 맞추시는가 보다.

이 곳엔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이 가을이 되면 항상 오고 싶은 곳이다. 우린 결혼하고 이 한적하고 조용한 할머니 댁 문간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서울에서 자란 나는 시골이 너무 낯선 곳이었다.

말로만 듣던 시골, 낭만적인 정취가 담뿍 절여 있는 곳인줄만 알았던 나, 시골에서 살다온 친구들의 얘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였다. 참외서리며 나물 캐러 다니며 산 과실을 따 먹던 얘기에 구수한 얘기를 모두가 나로 하여금 시골에 살고 싶어했던 동기가 되었다. 농사일은 전혀 김도 맬줄 몰랐지만 남들이 하는 일을 눈여겨 보며 나도 해 봐야 겠다며 마음 먹었지. 새댁의 작은 뱃심으로 텃밭에 심어논 시금치 밭을 맨다는 것이 뽕족 뽕족 올라오는 시금치를 다 뽑아

버리고 풀인 명아주 싹만 남겨 놓았던 웃지 못할일, 감자 싹을 오린다는 것이 감자눈을 죄 파버렸던일, 실수 연발이긴 했어도 시골일에 익숙해 지려고 노력했던 곳이다.

첫 애를 임신 했을때 길가 밭에 기다랗게 서서 꺾어질것 같은 수수가 왜 그리도 먹고 싶었는지.

주인 아줌마가 나중에 알고 쥘 수수를 한 소쿠리 갖고 오셔서 혀가 끼끌해 지도록 먹던일이며 다 걷어간 썰렁한 논 이랑에서 미꾸라지 잡던일 밤 주우러 갔다가 뱀을 보고 다시는 올라가지 않았던 뒷산.

밤이면 모깃불을 놓고 명석에 둘러 앉아 찰 옥수수를 먹으며 할머니에게 옛날 시집 올때 얘기며 시집살이 했던 얘기를 들으며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열중해 듣던 이 곳은 언제까지나 내 가을의 애깃거리가 되어 이곳을 찾아 오게 만든다.

할머니는 유독 군밤을 좋아 하셔서 항상 화로를 옆에 끼고 계셨던 분이다.

할머니도 이젠 너무 많이 늙으셨다. 된 서리 맞은 할머니의 머리가 유난히도 희어 보인다.

“할머니 올해도 밤 풍년 들었지요?”

“그럼 예미가 오는 가을엔 더 많이 열리는 것 같아”

“밤 많이 구워 잡수시고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해마다 밤나무가 풍성하게 열릴때면 내 마음도 아람 벌어진 밤처럼 가을이 가득 차면서 새 색시처럼 설레인다.

## 하얀 눈 하얀 토끼

서 룡 국 민 학 교  
4학년 신 동 선

어느날 우리들은 넓은 터에 모였다.

우리 마을에는 집도 밭도 아닌 버려진 듯한 넓은 빈터가 있는데 그 곳은 우리들의 놀이터로 썩 안성마춤인 곳이다. 우리들은 학교가 끝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이 그 곳에 모이곤 한다.

한번 놀이가 시작되면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사람 찾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화난 듯한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어휴,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에는 왜 그리도 하루해가 짧은지…….’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는 빈터에 모였는데 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지르고 말했다.

“아니 도대체 이 꼴이 뭐람?”

코스모스가 내 키보다 훨씬 높게 자라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데 그 밑엔 누가 언제 버렸는지 종이 조각이며 연탄재까지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너무 화가 나 펄쩍 뛰다가 발밑의 연탄재가 구르는 바람에 미끄러 넘어져 그만 엉덩방아를 찧고 말했다.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으나 주저앉은 채로 곰곰 생각해보니 이곳은 우리들의 놀이터이니까 우리가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애들아, 우리 이곳을 깨끗이 치우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서 가까운 곳 부터 치우기 시작 했다.

한참을 치우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분이 쓰레기를 한아름 가지고 오시다가

“어머나 저런! 나는 이곳이 쓰레기장인줄 알고 버렸는데 미안하게 되었구나.”

하시며 일을 거드시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엇그제 새로 이사오신 아주머니였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그 곳에서 놀기만 하였지 청소는 한번도 하지않았던 것이다.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오후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밥상을 물린후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젊었을때 잠시 마을을 떠나 계셨지만 곧 돌아오셨다 한다.

아버지가 들려 주신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어릴적 이야기였다.

그중에서도 한겨울에 제일가는 취미였다는 토끼몰이 얘기를 들을 때는 나도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과연 토끼가 있을까?

학교에서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공해 때문에 많은 산짐승, 들짐승들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데…….

내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용인

나는 용인을 사랑한다.

아버지께서도 한때 여러 곳을 다니셨지만 우리 용인처럼 아름다운 고장은 없었다고 하신다.

그 말을 들을때 나는 붉게 타는 앞산의 단풍을 생각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낙엽 위로 하얀 눈이 쌓일 것이다.

그위에서 토끼랑 다람쥐랑 술래 잡기를 한다면…….

하얀 눈, 하얀 토끼,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가

우리 마을은 그리고 우리 고장은 영원히 아름다울 것이다.

아름다운 내고장 아름다운 용인.

누구나 부러워할 고장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 곳에 살고 싶다.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된다면 경안천 물이 다시 맑아지도록 연구해볼 생각이다.

어때요 멋진 생각이죠?

## 남사중학교



1. 학교명 : 남사중학교
2. 교 장 : 구 본 흥
3. 주 소 :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봉무리 산 79 번지
4. 연 혁 :
  - 1951. 1. 10 남사 고등 공민학교 개교
  - 1954. 3. 7 교사신축 (4개 교실)
  - 1967. 12. 2 학교법인 “매카피” 학원 설립인가 초대 이사장 “매카피” 선교사 취임
  - 1968. 2. 2 남사중학교 인가 (3 학급) 초대 교장 구 본흥 선생 취임
  - 1970. 10. 30 교사 준공 (본관 지하 1층, 지상 2층)
  - 1971. 1. 16 제 1회 졸업식 거행
  - 1971. 2. 3 학급증설 인가 (9 학급)
  - 1972. 2. 28 제 2대 교장 방인수 선생 취임



- 1973. 3. 5 제 3대 교장 정수기 선생 취임
- 1974. 9. 20 교사 증축 (1개 교실)
- 1974. 11. 10 교직원 사택 준공 (40평)
- 1974. 12. 30 제 2대 이사장 정동호 선생 취임
- 1975. 1. 10 제 4대 교장 구본홍 선생 취임
- 1975. 6. 26 학교법인 동림학원으로 명칭 변경
- 1975. 9. 30 교사증축 (1개 교실)
- 1977. 4. 30 학교 교재원 설치
- 1977. 6. 10 변소 1동 및 참고 1동 신축
- 1977. 9. 20 학교 정문 준공
- 1978. 4. 20 간이 상수도시설 및 목욕탕 준공
- 1978. 11. 30 교사 증축 (2개 교실)
- 1979. 5. 20 학교 공원 조성
- 1980. 5. 30 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 1986. 2. 14 제 16회 졸업식 거행

#### 5. 교육 목표

- (1)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른다. (애국 애족)
- (2) 성실하고 협동하는 사람을 기른다. (성실 협동)
- (3) 예절 바르고 효도하는 사람을 기른다. (예절 효도)
- (4) 과학 기술을 익히고 탐구하는 사람을 기른다. (창의 탐구)
- (5) 건강하고 정서적인 사람을 기른다. (건강 정서)

#### 6. 노력 중점

- (1) 기초 학력의 신장
  - ①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 ② 자율 학습 및 가정 학습의 과제 제시 지도
  - ③ 교내 장학 지도 강화
  - ④ 탐구 학습의 생활화
  - ⑤ 상용 한자 쓰기 생활화
  - ⑥ 학력 목표치 설정 운영
- (2) 국민 정신 교육의 심화
  - ① 월·주회를 통한 기본생활 습관 지도

<학교순례> 

- ② 학도 애향대의 활성화
- ③ 상담 활동을 통한 생활 지도
- ④ 충·효의 얼 이어 받기
- ⑤ 올림픽 대회 대비 교육 충실

7. 학교 특색 사업

- (1) 학력 학습 집단 운영
  - ① 조편성 좌석 배치
  - ② 조원 업무 연수 및 활동 강화
  - ③ 조별 평가
- (2) 독서의 생활화
  - ① 필독도서 목록 선정
  - ② 독후감 발표 대회 개최
  - ③ 월별 우수 독후감 및 다독자 시상.

〈石坡의 蘭〉



# 謹賀新年

法人團 龍仁文化院

院長 金正

事務局長 李金

總務 鄭李

東應正

根 峻 根

石坡：興宣大院君, 1820(순조20)~

1898(광무)

李朝고종때 섭정(攝政)

大院君, 이름은 하응(晁應)

字는 시백(時伯), 호는 석파(石坡)

# 비월(飛越)

영지회 꽃꽂이 용인지부

지도: 오 민 근

사범: 전 병 렬



(素材)

오부재

백합

소철

석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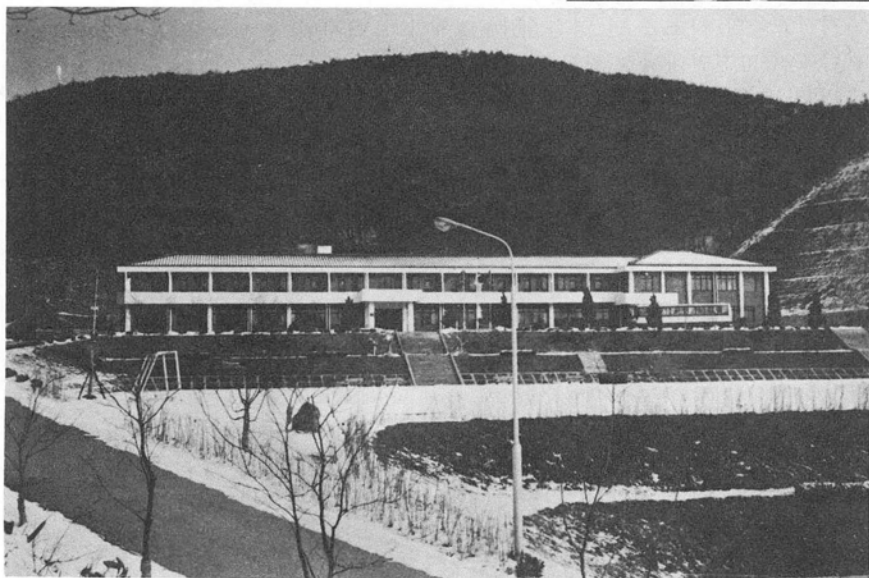
앞모란

장애를 받지 않는  
분방한 시각의 공간  
진실과 겸손과 사랑을  
한시에 표현할 줄 아는  
화려한 자유실

##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연수원



崔興俊 院長



(지적기술연수원 전경)

용인군 용인읍 운학리 624번지, 용인읍에서 백암으로 가는 길로 3킬로쯤 가면 왼쪽 산밑 남향으로 자리잡은 지적기술연수원은 대지 14,828 제곱미터 이외 부지 54,970 제곱미터이고 2층 건물로서 사무실, 기숙사, 강의실, 식당 분임토의실 등(2,020.22 제곱미터)으로 되어 있다.

대한지적공사는 1938년에 조선지적협회로 창설되었는데 그 다음해 지적기술원강습회를 열어 7명이 수료하였다. 이것이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최초의 교육이다. 그러나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86년 12월 말일 현재 지적직 공무원과 사원들 6,935 명을 수료 시켰다.

## <연수원 탐방>

교육대상은 사원(2,602명)과 지적직공무원(1,471명)이다. 공무원 교육은 1947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1979년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특별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연수원의 정원은 21명으로 최 홍준원장(교육이사)과 조 재열 교수부장을 비롯한 교수직 8명과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반 편성은 항측반, 전문측량반 같은 특수분야도 있어왔지만 현재는 세부분, 도근반, 삼각반, 수치반이 있으며 기간은 대체로 4주간씩이다.

지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특수한 분야다.

지적교육의 시초는 민영환(閔泳煥)씨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특명전권대사로 갔을때 각국의 발달상을 보고 돌아와 홍화학교를 세우고 양지과(量地課)를 설치한 1895년이다. 1904년 한국정부의 재정고문으로 용빈되어 온 메가다 다네따로(目賀田種太郎)가 탁지부안에 양지학교를 설치하여 지적교육을 실시하였고 여기를 나온 졸업생들이 최초로 현대식 측량을 하였다.

홍화학교 이후에도 부안측량학교, 한성한남측량학교, 호남학회사립측량학교 삼일학교, 인천사립 인흥학교등 사학에서 지적및 측량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자금과 교사의 부족으로 오래가지 못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후 일제는 토지조사를 하기위하여 기술원양성소를 두어 3,685명의 기술자와 사무원을 양성하였다. 이들이 일본 기술자의 지도를 받아가며 조선반도의 지적도를 완성한것이다.

1919년 토지조사가 끝난 다음 소화공과학원(昭和工科學院), 대전공과학원, 수원농림학교(현 서울대 농과대학) 등에서 지적측량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먼저 말한것 같이 1939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지적은 사람에게는 호적이 있드시 토지의 호적이다. 토지는 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측량을 한다. 지적교육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 연수원은 한국에서 이 방면의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최 홍준원장은 지적기술도 주요하지만 그 보다 앞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격을 겸비한 기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地名由來

鄭 亮 和

## 마평리〔麻坪里〕

麻坪리는 마전리〔麻田里〕와 신평리〔新坪里〕를 합친 이름이다. 본래 마평리는 양지군 주서면〔朱西面〕에 속했던 지역으로 현재의 송문리, 운학리와 더불어 있었던 옛 행정구역이다. 麻田은 마평리 일대가 옛날부터 삼〔麻 : 베의 원료가 되는 풀〕을 많이 심었던 곳이기 때문에 비롯된 이름이라고 하는데 동국여지승람이나 읍지〔邑誌〕 등의 기록을 보아도 삼은 우리 고장의 중요한 산물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지금부터 약 200 년전의 기록인 호구총수에는 용인현과 양지현의 면과 리의 명칭과 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에 麻田里, 新坪里의 地名이 보이고 있다. 또한 고종때의 읍지에도 麻北里, 麻南里 또는 麻田里와 新坪里로 표기되고 있는 것 등을 보아도 麻坪里의 地名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하사〔何寺〕

원삼면 독성리에 하사〔何寺〕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청주한씨가 많이 살고 있으며 효자로 이름이 높았던 韓逮〔한구〕선생의 정려〔효자각〕가 있다. 何寺는 우리말로 [웃저리] [으쩌리] [웃절이] 등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는 옛날에 절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비롯된 이름이다. 지금도 마을사람들의 말을 빌면 절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웃저리를 何寺라고 쓰는 것은 「엇저리」로 생각하여 어찌하〔何〕와 절사〔寺〕를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어찌〔엇〕 + 절〔寺〕 이가 된다고 생각한데서 비롯된 표기인 것 같다. 그러나 청주한씨 족보를 보면 그 마을을 古寺洞으로 쓰고 있는데 何寺라는 표기보다 옳은 것으로 보인다. 즉 웃〔위, 上의 뜻〕 절〔寺〕 이의 뜻으로 생각하거나 옛절이〔古寺〕로 보아 웃〔古, 高의 뜻〕 + 절〔寺〕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되며 위의 何寺〔하사〕라는 표기보다 훨씬 타당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웃저리 웃절이등의 우리말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나 굳이 한자로 쓸 때에는 古寺洞 또는 高寺洞

## 地名由來

로 썼으면 한다.

### 용곡〔龍谷〕

양지에서 원삼쪽으로 가다가 양지골포장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마을이 있다. 행정구역상의 명칭은 내사면 남곡리이며 龍谷이라고 부르는 마을이다. 우리말로는 「배매실」 「배마실」 「뱀의실」 등으로 부르는데 배〔舟〕나 뱀과 연관되어 유래된 지명이다. 즉 마을의 형상이 마치 배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배매실이라고 했고 배가 구멍이 나면 가라앉는다는 것과 비유되어 마을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옛날 배를 매던 곳〔정박하던〕이라해서 배매실〔배매는 곳〕이라고 했다고 하기도 한다. 또 동네 앞의 야트막한 야산이 뱀의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뱀의 실이라고 한다고도 하는데 어느 것이 확실한 유래인지는 알기 어렵다. 주민들의 말을 빌면 배매실이 더 가까운 것 같으나 龍谷이라고 적는것은 100여년전의 邑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배〔舟〕보다는 뱀〔巳〕과 더 가까운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 고진〔古陣〕

고진은 용인읍 고림리에 딸린 마을이다. 용인읍내에서 동북쪽으로 용인상업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마을을 고진이라고 하는데 「이진말」이라고도 부른다. 한자로는 古陣이라고 적는데 이는 마을 뒷동산에 임진왜란때 왜군이 사용했던 진터가 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다. 지금도 용인상고 본관 오른쪽 동산위에 2단으로된 진터가 남아 있는데 옛날 진터가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예진말〔옛진말〕이라고 불리워지던 것이 차츰 부르기 쉽게 변화되어 이진말로 바뀌어졌다. 따라서 예진말〔古陣〕이 맞는 것이 되며 고진이나 이진말보다 예진말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지명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 재 돌 음

河 周 成

## 1. 概 要

재돌음의 演戲는 全國에서 高루 分布되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가장 最近에 보인 곳은 驪州와 龍仁 等地에서 그 儀式이 이루어 졌다. 원래 이 재돌음은 喪吊性 祭儀式으로써 畿湖地方과 江原道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재돌음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죽은 故人의 저승길을 밝혀주고 저승길의 路資를 充分하게 주어서 極樂往生의 發願과 平소의 德을 기리고자 하는 뜻에서 행해지는 祭儀式으로 喪吊歌와 行輿, 門前儀式 그리고 儀式이 끝난 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輿에 踞해서 한바탕 즐기는데 이러한 進行은 喪家집이 슬픈 正경과는 또 다른, 슬픔을 樂으로 바꾸는 先祖들의 德을 느낄 수 있는 複合的인 形態의 儀式的 民俗이다. 이 재돌음의 儀式은 地方의 財産이 많은 土豪나 落鄉한 名門巨族의 집 안에서 好喪을 입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儀式으로써 畿湖地方의 儀式은 빈 상여를 메고 집집마다 다니며 路資를 捻出하는데 비해 江原道 地方은 喪家에서 마련해 준 음식을 온 洞里的 住民들이 나누워 먹으며 밤새워 춤추고 뛰노는 놀이마당을 펼치는 것이 다르다. 다만 이 재돌음의 儀式을 자주 接할 수 없는 것은 一般喪家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好喪일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돌음의 儀式은 그 이루어지는 儀式의 節次가 特異할 뿐 아니라 그 回心曲이나 喪吊歌도 일반적인 喪輿소리와는 달라 藝術的 價値가 한결 높은 것으로 보인다.

## 2. 龍仁의 재돌음

龍仁은 옛 부터 山勢가 아름답고 물이 맑아서 많은 落鄉한 名門의 後孫들이 隱居했으며 地方의 土豪가 많아 이 재돌음의 儀式이 畿湖地方에서도 가장 많이 행하여 졌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南四面에서는 四年前에 이 재돌음의 儀式이 나타나 全國을 통해서 가장 最近에 이 儀式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儀式이 예전의 화려했던 광경은 많이 省略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점은 現在 家庭儀禮準則 때문이고 또한 이 儀式 自體가 新敎의 影響에 의한 축소로도 보인다. 이 龍仁의 재돌음의 儀式은 喪輿꾸미기 → 回心曲 → 行

<민속놀이>

喪 → 門前儀式(路資捻出) → 마당놀이로 進行되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進行方法

○ 喪輿꾸미기

喪家에서 정한 발인이 되기 전날 밤에 喪家의 문 앞에서 재동음의 演戲者一行은 喪輿를 꾸미는데 이 상여는 一般的인 喪輿와 같으며 棺이 없는 것이 다를 뿐이다.

○ 回心曲

喪輿가 다 꾸며지면 行輿를 인도할 향두꾼(선소리의 唱者)이 상여에 올라타고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일어서면 상여는 屍身이 安置되어 있는 喪廳을 향 한 다음 향두꾼이 回心曲을 부른다. 이 때의 回心曲은 唱者에 의해서 特別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巫歌에서 나타나는 回心曲을 부르는 것이 通例이다.

○ 行輿

回心曲이 끝나고 나면 喪廳을 向해 三拜한 후에 햇불을 켜서 喪輿의 周圍를 밝히고 선소리에 맞추어 상여꾼들이 후렴을 받으며 길을 떠나는데 이 때의 喪吊歌(喪輿소리)의 歌辭는 一般的인 行輿歌와 같으나 그 소리가 길고 끄는 음이 요성(흔들어 내는 음)으로 나타나며 그 후렴도 “오~하 어~허 허허이야”를 길게 받거나 아니면 “나무아미타불”로 받기도 하는 등 特徵있게 나타난다. (악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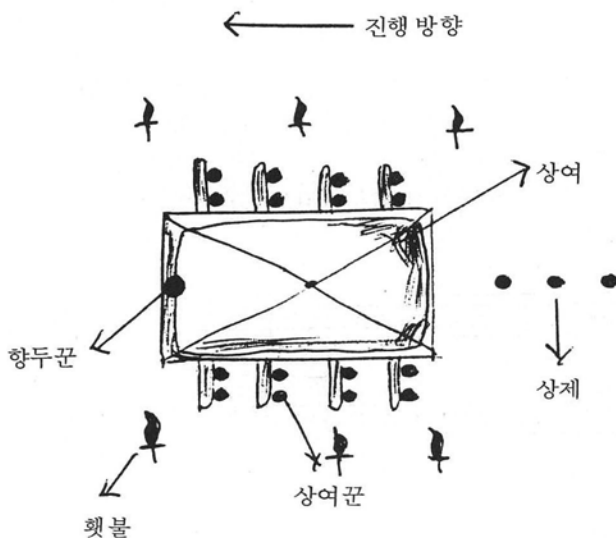
<상여소리>

<선창>

<후창>

※ 위와 같은 선율이 반복된다.

〈행여의 평면도〉



○ 門前儀式

故人和 親戚間이거나 평소에 고인과 親分이 두텁던 사람이 살고있는 집의 문 앞에 도착하면 상여꾼들은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어 절을 하는데 오른쪽을 맨 상여꾼은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을 맨 사람은 왼쪽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 喪制는 집안에 들어가 路資를 걷는데 그 집의 주인은 평소 故人의 德을 기리는 말을 하면서 故人의 저승길을 편히 가게 하기 위한 路資를 준다. 이 때 재돈음의 喪制는 원래의 喪家의 喪制가 아니고 洞里 사람중에서 역을 하며 이 상제가 路資를 捻出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며 거두워 들인 資金은 故人의 이름으로 洞里에 利益을 줄 수 있는 共同的인 事業에 쓰여진다.

○ 마당놀이

이렇게 洞里의 집집마다 다니며 路資를 걷고 난 後에는 喪輿를 메고 喪家의 집 앞에서 洞里의 住民들과 재돈음의 演戲者 一同이 모여서 마당놀이를 하는데 이 마당놀이는 故人이 이승과의 모든 因緣을 끊고 極樂往生 하기를 비는 儀式

<민속놀이>

으로써 이 때는 상여꾼들이 잦은 상여소리에 맞추워 상여를 들어올렸다 내렸다하며 마당풀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이러한 마당풀이의 儀式은 재돌음에서만 나타나는 特異한 形態의 光景으로 民謠(回心曲, 喪吊歌, 行輿歌等)과 놀이(마당풀이)가 混合된 複合民俗이다.

이러한 재돌음은 儀式의 뜻이 1) 故人의 저승길의 路資捻出, 2) 極樂往生の 發願, 3) 故人을 떠나 보내는데 대한 離別(死別)의 슬픔을 극복 등을 理由로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도 실질적인 理由는 地方의 土豪나 名門巨族의 집에서 자신의 家門의 勢力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잦은 상여소리>



(2) 人員編成

재돌음의 人員編成은 향두꾼, 상여꾼, 상제, 햇불잡이와 동리주민들로 이루어지며 人員 및 복색은 다음과 같다.

| 명 칭     | 인 원        | 복 색                                                     |
|---------|------------|---------------------------------------------------------|
| 향 두 꾀   | 1          | 상여에 타고 선소리를 맥이며 바지, 저고리에 검정도포 짚신에 행전, 건을 쓴다.            |
| 상 여 꾀   | 16         | 상여를 메고 후렴을 받으며 바지, 저고리에 건을 쓰고 행전을 치며 짚신을 신는다.           |
| 상 제     | 남 2<br>여 1 | 일반적인 상제의 굴건제복에 노자염출을 한다.                                |
| 햇 불 잡 이 | 6          | 재돌음에 의식이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여의 주위에 햇불을 밝히며 바지, 저고리에 짚신을 신는다. |
| 동리주민들   | 다 수        | 마당풀이에서 함께 즐기며 남자는 바지, 저고리, 여자는 치마, 저고리를 입는다.            |

이 외에도 재돌음의 편성의 특징은 이 재돌음이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吊旗나 명정 등이 없는 것도 特異하다.

(3) 喪吊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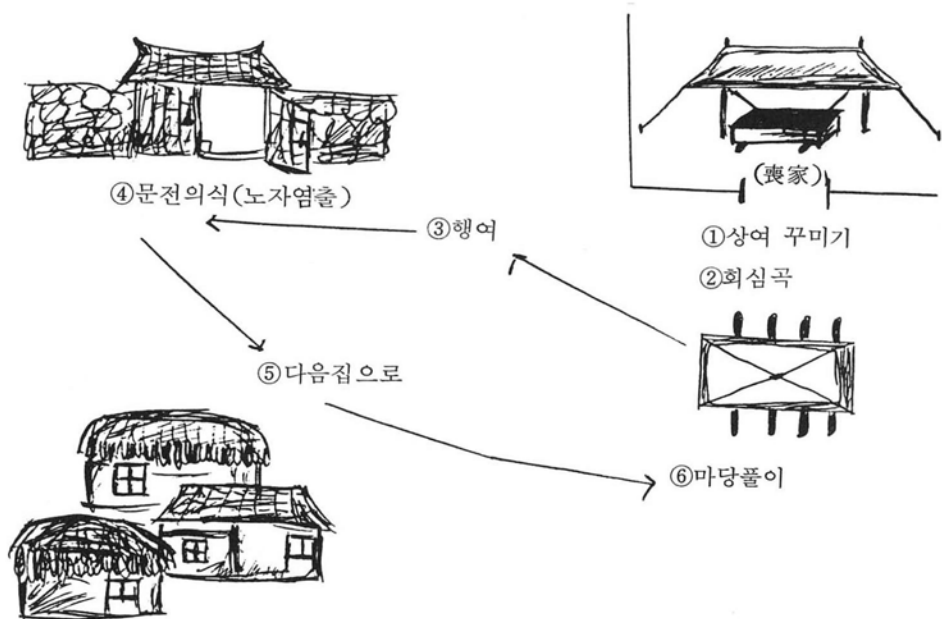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이요  
 (후렴) 오호 어~허 오~허 이야  
 어제 오늘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부르노니 어머니요  
 찾노니 냉수로다  
 흐르나니 눈물이요  
 나오느니 한숨이라  
 무너블러 굶을한들  
 굶덕이나 입을소냐  
 판수블러 경읽힌들  
 경덕이나 입을소냐  
 여보시오 여러분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태인사람  
 뉘덕으로 태였는가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받아  
 이세상에 태어나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못다갠고  
 이삼십을 당도하니  
 부모은공 갠손가  
 칠팔십을 당도하니  
 없던망녕 절로나고  
 염라국의 사자님에  
 재판관의 명을받고

<민속놀이>

일직사자 등을밀고  
 월직사자 손을끌어  
 어서가자 재촉하니  
 이내인생 하릴없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삼월 돌아오면  
 꽃은다시 피련마는  
 다시오기 어려워라

김석정 (63세, 농업) 포곡면 마성리

<재돌음의 편성도>



# 言論界의 先覺者 石儂 柳 瑾

(下)

朴 鏞 益

조선조(朝鮮朝)의 유교정치(儒敎政治)의 극단적(極端的)인 폐단(弊端)은 사사건건(事事件件) 음모(陰謀)와 시기(猜忌) 등의 이루 형언키 어려운가운데 더욱 사상속박(思想束縛)에 있어서는 기가 막히다 못하여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 윤백호(尹白湖)<sup>1)</sup>가 경서(經書)의 해석을 달리하여 토(吐)를 고쳤다는 것으로하여 목숨을 바친것은 한집안에서 사상(思想)이 배치(背馳)됨이니 사문란죽(斯門亂賊)이 오히려 가(可) 하거니와 최간이(崔簡易)<sup>2)</sup>가 장자구해(莊子句解)를 했다하여 시비를 들으며 이의한 구해남화진경판(句解南華眞經版)이 제주도(濟州島)로 귀양을 간 따위는 참으로 고금(古今)에 못들은바이오. 그 어느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이에 다시 무슨 말을 하며 그 끝이 어찌될것이나 하늘을 우러러 오죽 한숨이나 지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백년(五百年) 동안 선비를 길렀다는것이 다만 편협 아부의 무리를 길러 냈다는 것뿐이니 이금채(李錦帶)<sup>3)</sup>가 사학(邪學)의 죄로 몰려 죽을때에 선비가 마땅히 학문을 주장할진데 모름지기 박식(博識)을 힘쓸것이거늘 불행이도 사상(思想)이 편협(片狹)한 때에 나서 글한자(字)의 죄로 죽으니 인간(人間)에 식자(識字)하는 사람이 되기도 어렵거니와 또한 나라를 위하여 한심(寒心)하다 하였다. 이 한심한 이야기를 선생이 하실때에 후생(後世)인 우리는 과거가 과연 그러하였든가 하여 스스로 망연(茫然)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말이 되풀이 되지만 책판(冊版)이 귀양을 간다는 말은 세상에 없는 쾌이한 일로서 역사(歷史)에 한페이지를 차지할 만한 일이다.

선생이 이런 한탄(恨嘆)의 말씀을 하다가도 사람이 워낙 구식의 사람이기에 선배(先輩)의 두호(斗護)가 적지 않았다. 열에 있던 한 젊은이가

“그놈의 세상을 때려부시지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어!” 하며

제가 친히 당하여 한(恨) 풀이나 하는양 주먹을 들썩이니 선생의 말씀이

1) 尹白湖 : 본명 尹鏞 1617 - 1680. 조선조중기의 학자. 본관 南原

2) 崔簡易 : 본명 崔堦 1539 - 1612. 조선조중기의 학자. 본관 通川

3) 李錦帶 : 본명 家煥 1742 - 1801. 조선조말의 학자. 본관 驪州

“옛적이라고 다 그러기야 하겠나 그 중에도 나은 사람이 있었지”하며 좌중(座中)을 도라본다. 이어서 군신강상설(君臣綱常說)을 타파하고 민중군경설(民重君輕說)을 창출(唱出)한 정죽도(鄭竹島)도 있으며 유학파중(儒學派中)에도 정주퇴계(程朱退溪)의 집지은 일파외(一派外)에 다른 한학파(學派)를 이룬 윤전(尹鑄) 심윤대(沈允大)들도 있으며 내가 만일 중국(中國)의 육조시대(六朝時代)에 태어났으면 돌림천자(天子)는 하였을것이라고 한 임백호(林白湖)<sup>4)</sup>도 있으며 내기운이 이만하면 단신(單身)으로 넉넉히 북벌(北伐)을 할 수 있다하여 혼자 압록강(鴨綠江)을 건넌 풍덕(豐德)의 김생원(金生員)같은 의기(義氣)있는 사나이도 있었다하여 옛 사람이라고 모두 한바퀴에 쓸어 넣을것이 아니라고 …… 옛 사람의 험집을 얼마큼 끌어덜은뒤에 말을 슬그머니 돌려 웃은 이야기도 있다. 미상불(未嘗不) 과거는 약간 숨기있는 놈이야 견딜수가 있다. 그리하여 천치(天痴)가 아니라도 천치행세(天痴行勢)를 하여야하며 한편으로는 어수룩한 세상이라 흐릿한 양반도 많이 있었지 라고 하였다.

한말(韓末)에 있어서 회(會)라는 명칭이 하나 둘이 아니오 다 뜻있는이의 모임 이라고 하였지마는 소위 글자(字) 하는 이의 모임으로는 광문회(光文會)보다 나은것이 없었다. 여러사람이 모여서 여러사람이 도우고 여러사람에게 보이고 알리며 이른바 문화(文化)를 향상시키기로 목표한 회(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에 모이는 이는 여러종류에다 여러방면이어서 학자(學者)도 있으며 정치가(政治家) 재산가(財產家)도 오고 빈한자(貧寒者)도 오며 장독가(掌讀家)도 있어서 외입쟁이도 되고 말하자면 광문회(光文會)라는것은 한갓 학자로서 학문을 연구하는 회(會)일 뿐 아니라 그때 소위 내노라하고 떠들고 뽐내는 사람은 다 이곳을 들러고 하며 출세를 하려는 사람은 인사차(人事次)라도 이 기관속에 발 그림자를 들여 놓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만큼 뜻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기관의 발기인(發起人)인 육당최(六堂崔)라는 사람은 어느 외국인이 조선(朝鮮)의 지사(志士)라고 신문이나 잡지에 까지 소개한 일이 있었다. 하루는 선생이 일을 마치고 틈을내어 육당최(六堂崔)하고 바둑을 대하게 되었다. 최(崔)란 그사람이 역시 선생보다 기벽(氣癖)이 지지아니하는 사람이라 선생과 바둑을 두다가 자기에게 불리한 점이 있으면 연해 무르게되었다. 선생도 역시 기벽(氣癖)에 과(過)한지라.

“내가 최七七이를 모르느냐, 七七이가 바둑을 두다가 무르니까 무르기도

4) 林白湖 : 본명 悌 1549 ~ 1587. 조선조. 선조때 문인 본관 羅州



하면 누구든지 불리 할때에는 자꾸 무를터이니 그렇게 하면 바둑판이 끝날 때가 있겠느냐?” 하며 바둑판을 쓸면서

“이놈아 어른하고 바둑을 두면서 그렇게 버릇없이 무르는 법이 어디있어” 하고 주먹을 쥐어 최(崔)의 귀통이를 쥐어 박았다하니 이때에 최(崔)가 선생에게 대하여

“제가 이때까지 출세한 뒤에 남에게 귀통을 맞아본적이 없는데 이것은 억울 합니다.”하고 선생에게 대항하였다.

이 때 선생이 다시 주먹으로 세계 최(崔)를 쥐어 박으며

“네까진놈 남선(南善)이고 내가 알까닭이 있나!”하고 선생의 테테한 목소리로 한바탕 떠들었다.

하몽이상협(何夢李相協)군하면 언론기관에 간여(干與)한 사람치고 모를이가 없으며 이 사람이 ‘무궁화(無窮花)’라는 소설을 썼을 때라 선생이 젊은 이와 놀기를 좋아하면 탈이없는 늙은이라 자기소설(自己小說)중에 선생을 선생님으로 모델한 일이 있었다.

이것이 자연(自然) 선생에게 알리어 짓기에 또한 선생은

“젊은 놈들은 버릇이란 도무지 없어 선생을 소설중의 한사람을 만들다니, 그러나 이놈이 제주가 있어 쓸만한 놈이야 앞으로 잘 힘써 가거라”고 하며 웃으신 일이 있었다.

이 때는 선생이 광문회(光文會)에다 중학교 교장(中學校 校長)으로 신문사(新聞社)에 까지 여러 방면에 관계가 많은 때였었다.

이같이 선생이 젊은이에게 친한 사람이요. 허물없고 간격없는 사람이라 시체말로 모범늙은이 모범적인 선생이라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려면 반드시 의논하며 그를 모시어 일을 하여나갔다.

인촌김성수(仁村金性洙)군이 학교와 회사 그리고 신문사등을 경영 할때에 그때마다 선생을 중심으로하고 선생을 위에 얹은 것이 까닭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생은 선비로 깨끗하므로 사랑하므로 또한 사람다운으로 과연 모범적인 선생이다. 그리고 다른것은 다 얼마아니하여 뒷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없어지는지 모르지만 그의 문자적공로(文字的功勞)… 문헌적공로(文獻的功勞)는 영원히 남음이 있으니 그것은 그의 손을 거쳐나온 언어(言語) 곧 조선(朝鮮)말과 역사(歷史) 즉 조선역사(朝鮮歷史)이다. 이 역사언어(歷史言語)에 대한 서적(書籍) 그 책자가 반드시 선생의 명의(名義)로써 들어나는 것은 아니요. 남이 그 내용을 아는지 밖에 잘 알지 못하지마는 알고보면 역사언어(歷史言語)에 대한 선생의 공로(功勞)는 되풀

<特 輯>////////////////////////////////////////////////////////////////////////////////////////////////////

이하여 영원히 거처갈 것이니 그가 역사(歷史)를 전공(專攻) 또는 언어(言語)를 연구(研究) 하여서가 아니라 그의 지식(知識)이 좁지아니하고 그의 생각이 보통(普通)과 다르므로 섭렵(涉獵)하고 탐채(探採)한 바 나머지에 남이 모르는 가운데에 끼친 바가 있는 것이다. 더욱 역사(歷史)보다는 언어(言語)는 예전 선비들이 돌보지 아니한 것으로 이 늙은이가 유의(留意)하였다든 것이 희한한 일이 아닌가 광문회(光文會)가 편찬한 신자적(新字典)을 보면 그 자전해석(字典解釋)에 쓰인 번역된 조선(朝鮮)말이 선생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당장 보이는 들어난 공로(功勞)는 알고 떠들어대지 아니하고 들어나지 아니한 숨은 공로는 늘 아는이 이외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는 틈틈이 역사(歷史)를보고 편찬(編纂)에도 힘쓰며 전문적인 사가(史家)로 지지아니 할 수 없으며, 전고(典故)나 일사(逸史)에 대하여 들을 것 배울 것이 많았는데 이때에 이방면으로 가장 쟁쟁하기로는 무원김교헌(茂園金教獻) 선생이다. 그리하여 두 선생은 의(誼)롭기도 형제(兄弟)요 어떠한 주의(主義)로 통하기는 오히려 친형제(親兄弟)에 못지 아니하였다. 단조사고(檀朝事故)나 신단실기(神檀實記)는 이들의 손으로 나온 것이며 비록 그 중의 한 분에 이름으로 간행(刊行)되었다 할 지라도 서로 보조(補助)가 적지 않음은 누구나 알것이다. 신단민사(神檀民史) 배달강역고(倍達疆域考)는 물론 무원선생(茂園先生)의 것이며 신찬초등역사(新撰初等歷史) 三권은 선생의 것이다. 그외에 세상이 모르며 오직 몇 사람밖에 아는이 없는 것이 하나있으니 곧 상해(上海)에서 간행(刊行)된 각국근세사(各國近世史)중 한국통사(韓國痛史)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통사(痛史)는 태백광노(太白狂奴)라고 익명(匿名)으로 간행된 것이요. 태백광노(太白狂奴)는 겸곡 박은식(謙谷 朴殷植) 선생의 서유(西遊)후의 희호(稀號)인데, 겸곡선생과 선생과의 사이와 관계는 앞서 얼마 논급(論及)한 것으로 이의 자료수집(資料收集)으로 되는 대로 초(抄)한 것이 있었다하여 겸곡선생은 자기도 모르고 보태고하여 그것을 마루 재어 다듬어서 펴낸 것이다.

이 두 선생은 지금 어디계신지. 생각하건데 좋은 세상에 선생들이 멀리 아니 계실 것이다. 술상아래 시축(詩軸)을 놓고 예전에 설농탕 자시는 일로부터 일석서장(一石書莊)에 여러 이야기와 아울러 우주백년인사의(宇宙百年人似蟻)를 무를 것이 아니런가.

늙은이 보다 젊은이를 본위(本偉)로 한 늙은이요. 자기보다 세상을 본위로 한 늙은이다. 그가 무슨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되 그의 말씀은

“사람이 널리 놀아야 뜻이 갑갑지 아니하고 사람이 커지는 것이다.”라 하며 가끔 만주(滿州)이야기를 하였다.

“만주(滿州)는 우리 조상(組上)들이 뒹굴든 곳ियो. 우리 대종(大祚)이 베푸신(施政) 곳이라. 이것을 모르는 세상의 어린이들은 이곳을 생각에 젖을 결도 아니지마는 소위 문자(文字)하는 뜻있는 사람으로 저 킴킴한 구덩이를 그냥 버려 둘 수가 있나”라고 하였으니 그 범연(凡然)치 아니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몸은 이세상을 떠났지마는 그의 수택(手擇)으로 영원히 불 것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世放聲大哭)으로부터 자전(字典) 통사(痛史)등 역사언어(歷史言語)로 그의 생각을 놓지 못할 것이 많을 것이다.

끝으로 그가 최후에 태화초부(太華樵夫)란 이름으로 발간한 시체소년행(時體少年行)은 그야말로 그의 시대를 우려하고 세상을 한탄한 장편(長篇)으로 대쪽같은 성(性)을 나타낸 것으로 볼 것인데 번거러움을 피하고 구두절(句節)을 소개하면

“군불견남린지부북린귀      君不見南隣之富北隣貴  
부중덕의 단중진              不重德義但重籤

이는 이글의 허두(虛頭)이며

가식예수서대탈              假飾禮數西大奪  
조해언어동경변              組解言語東京邊 이며  
왕세기전연백압              往歲己典延白壓  
금춘도매제경전              今春都賣堤傾田

들이 얼마나 그때의 형편을 딱하게 그린것이며  
망망경사무념와              茫茫經事無念臥하니  
회지급욕사천              悔之何及欲死湫은

그가 딱하다 못하여 “차라리!”하고 쓴 글이 아니런가!

※ 참고 : • 韓國新聞史

• 歷史言語

용인객관에서 매계\*의 시를 보고

정희량 지음  
홍순석 옮김

지난날 객관에  
훌륭한 시편 남겨놓고  
매계 선생 가신 뒤에  
달만 거둬 둥글었네.  
누에 올라 모르는 세에  
소리높여 읊노라니,  
한 서린 가을 바람은  
뜻을 전하려는 듯하네.

龍仁客館見梅溪手題有感而作

古館仍留絕俗篇 梅溪去後月重圓  
登臨不覺高聲讀 恨滿秋風意已傳

「虛庵遺稿」卷2

■ 정희량(1469 ~ 1504)은 조선조의 문신. 자는 淳夫, 호는 虛庵, 본관은 海州이다. 金宗直의 문인으로 詩文에 능하였고, 陰陽學에 밝았다. 갑자사화를 예견하고 미리 잠적하였다.

\* 매계(梅溪)는 조위(曹偉)의 호. 무오사화로 인해 정희량과 함께 의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시를 화답하였다.

## 효우정 기(孝友亭記)

서거정(1420~1488) 지음

홍 순 석 옮김

내가 듣자니, 용구(龍駒)의 동쪽에 남곡(南谷)이란 데가 있는데, 고려말에 이선생, 이름은 석지(釋之)란 분이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 숨어 살며 덕을 심어 후손에게 끼쳤다. 두 손자를 두었는데, 맏은 종겸(宗儉)이니, 침지중추(僉知中樞)요, 막내는 종겸(宗謙)이니, 군자판사(軍資判事)였다. 이 두 선생은 모두 나이가 노쇠하기 전에 벼슬을 사퇴하고 함께 와서 살았었다. 침지중추는 자기 서재의 편액(扁額)을 쌍계(雙溪)라 하고, 판사도 또한 암곡(巖谷)이라 이름하여, 형과 아우가 골짜기의 동쪽 서쪽에 나뉘어 사는 데, 언덕과 계곡에서 담담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나의 동년(同年) 김맹(金孟) 자진(子進)이 역시 남곡에 사는데, 일찌기 나에게 말하기를, “남곡 별장은 이씨의 유물(靑甌)<sup>1)</sup>인데,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으며 일구(一區)의 제택(第宅)이 있고, 백경(百頃)의 농장이 있어 상마(桑麻)와 곡식을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어별(魚鼈)과 채소가 풍족하며, 천석(泉石)·화조(花鳥)·풍우(風雨)·설월(雪月)로 무릇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할 만한 것에 이르러는 하나 둘로 헤일 수 없는 정도다. 형과 아우가 자기 취미를 즐기고 명예욕은 전혀 없으며, 일찌기 쌍계의 곁에 정자를 지어 이름을 효우(孝友)라 하고, 형과 아우가 산관야복(山冠野服)과 홍안(紅顏) 백발로 나날이 그 안에 거닐며 읊조리고 이야기하며 그 즐거움이 고상하고, 이따금 친척과 자제를 거느리고 「시경」과 「예기」를 강독하여 등불 아래 글 읽는 소리가 날 적에는 그 즐거움이 흐뭇하며, 명절이 돌아오면 온 고을 부모(父老)들을 초청하여 술마시고 바둑두며 거나하게 취하는 그 즐거움도 역시 다함이 없다. 두 선생의 높은 품치는 온 고을이 사모하고 있으니, 옛날을 찾아보면 마땅히 한나라 양소(兩疏)에게 못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sup>2)</sup> 김자진이 사람됨이 식견이 고명하니 한 마디 말로 믿을 수 있거니

1) 진서(晉書) 왕헌지전(王獻之傳)에, “밤에 재실에 누웠는데 도둑이 방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모두 훔쳐 가니, 헌지는 천천히 말하기를, ‘도둑아 푸른 털 방식〔靑甌〕은 내 집 유물이니 두고 가거라.’ 하였다. 그래서 뒷사람이 청전을 세업(世業)의 대명사로 쓴다.

와 나는 김자진의 말을 듣고 더욱 두 선생의 높은 풍치를 사모하였다. 그 동안 쌍계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암곡만이 홀로 남았는데, 쌍계의 아들 중호(仲浩)씨가 암곡(崑谷)을 위하여 이 정자에서 연회를 열어 수(壽)를 올리게 되자, 고을 사람과 집안 일가들이 모두 모이며 암곡은 시를 지어 제군들도 따라 지은 이가 많았다. 그래서 가락(駕洛; 지금의 金海) 허자술(許子述) 씨가 그 사실을 대략 서술하였다. 이제 중호씨가 사람을 시켜서 나에게 서문을 청하므로 나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하늘이 사람을 벌적에 모두 오덕(五德; 仁·義·禮·智·信)을 갖추게 했는데, 인(仁)을 으뜸으로 삼았으니, 이 효우란 것은 모든 행실의 근원이요, 온갖 선(善)의 말단이다. 이 때문에 주(周)나라는 덕과 행실로 사람을 취택하는데 효우가 먼저 번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선유(先儒)가 효우의 뜻을 해석하기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효도요, 형제간에 잘하는 것이 우애이다.” 하였으니, 쌍계가 효우로 정자 이름을 택한 것이 어찌 함부로 된 것이라.

이씨가 남곡에 세거(世居)하여 형과 아우가 선인(先人)의 시례(詩禮)를 계승하고, 선인의 전택(田宅)을 생각하여 한창 올라가는 벼슬길에서 용퇴(勇退)하여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꽃과 나무를 보면, “이 꽃과 이 나무는 우리 선인이 오르고 건너던 데다.” 하며, 종족(宗族)을 보면, “아무 형과 아무 아우는 우리 선인의 지파(支派)다.” 하며, 향당(鄉黨)을 보면, “아무 늙은이와 아무 어린이는 우리 선인의 옛 친구라.” 하여,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행실에 있어서도 모두 생각이 선인에게 미치니, 그 효도가 지극하다 하겠고, 형과 아우가 금곤옥우(金昆玉友)<sup>3)</sup>로서 훈(塤)으로 부르면 지(麋)로 화답하여<sup>4)</sup> 비록 소식(蘇軾)·소철(蘇轍)과 육기(陸機)·육운(陸雲)으로도 이보다 더할 수 없으니, 그 우애가 지극하다 하겠다. 지금 쌍계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중호(仲浩)씨가 능히 선산(先山)에 대하여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또한 암곡에게 조카로서의 효도를 다하며, 물러가서 여러 종형제와 더불어 즐

- 2) 한(漢)나라 소수(疏受)·소광(疏廣)의 숙질이 태자(太子)의 스승으로 있다가 하루는 서로 말하기를, “〈노자(老子)의 말에〉 축한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였다.” 하고, 곧 고향으로 돌아가서 임금과 태자가 주는 금(金)으로 일가와 친구들과 잔치하고 놀았다.
- 3) 옥곤금우(玉昆金友)와 같은 말이다. 남조(南朝) 양(梁)나라 왕전(王銓)이 그 아우 왕석(王錫)과 더불어 효행이 똑 같이 드러나니, 사람들이 옥곤금우라 칭하였다. 그래서 후세에는 형제를 곤옥(昆玉)이라 한다.
- 4) 악기(樂器)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 편에, “형이 훈(塤)을 불면 아우는 지(麋)를 분다.” 해서 후세에 흔히 형제간에 화목하는 대명사로 쓴다.



집고 화평한 분위기 속에 잔치를 벌리고 상채(常棣)<sup>5)</sup>의 시를 노래하며 척령(鶴鶴)<sup>6)</sup>을 읊조리니, 이씨의 효우가 어찌 한정이 있으랴. 장차 계승을 잘하여 효도를 충성으로 옮기는 자가 이 남곡에서 나게 될 것이다.

아, 주성왕(周成王)이 군진(君陳)을 명하면서 먼저 효우를 칭찬하였고, 윤길보(尹吉甫)가 장중(張仲)을 칭찬하면서도 역시 효우의 덕을 노래하였으니, 대개 효우란 것은 공명(功名)이나 관작(官爵)에 비할 바 아니요, 모두 사람의 실덕(實德)과 실행일진데 어찌 헛된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미 김자진의 말을 믿는 처지요, 겸하여 가락(駕洛)의 시문을 채택해서 효우정기(孝友亭記)를 지었다. 무술년.

### 孝 友 亭 記

徐 居 正

吾聞龍駒之東，有南谷，高麗季，有李先生諱釋之者，休官跡隱，種德遺後，有二孫，長曰宗儉，僉知中樞，季曰宗謙，軍資判事，兩先生，皆年未衰耗，謝簪笏借徠家焉，僉樞扁其軒曰雙溪，判事亦號以崑谷，伯仲氏分居谷之東西，一丘一壑，淡如也，吾同年金孟子進，亦居南谷，嘗語居正曰，南谷別墅，李氏青氈，有山窈然，有水冷然，有宅一區，有田百頃，桑麻杭稻之多穫也，魚鼈茹蔬之足用也，至如泉石花鳥風雨雪月凡可以娛心悅目者，不可一二言也，伯仲氏自適其適，無慕乎外，嘗於雙溪之傍，構亭曰孝友，伯仲氏，山冠野服，白鬢紅顏，日杖屨於其中，吟哦談笑，其樂霽霽然，時率親戚子弟，講讀詩禮，吾伊燈火，其樂油油然，至如歲時伏臘，會鄉黨父老，壺樽棋博，扶携醕酌，其樂亦無窮矣，兩先生風流高致，一鄉慕之，求之於古，當不減漢之兩跡矣，子進之爲人，識見高明，一言可信，居正聞子進之言，尤慕兩先生之高風焉，間者，雙溪已逝，崑谷獨存，雙溪之子，仲浩氏，壽崑谷于斯亭，鄉黨宗族皆會，崑谷有詩，諸君多和之者，駕洛許子述氏，略序其事，今仲浩氏，使人求豫文，豫曰天之生人，皆具五德，而仁爲首，仁之道，

5) 나무이름인데,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이기도 하다. 주공(周公)이 형제들과 잔치하는 시이다.

6) 새 이름인데, 「시경」 소아 상채(常棣) 편에, “척령이 문턱에 있으니 형제가 난급하다.” [脊令在原 兄弟急難]이라 하였다.





## 龍仁郡誌編纂計劃

### 1. 目的

郷土의 歷史와 傳統文化의 脈絡을 體系의으로 集大成하여 郷土의 優秀한 傳承文化를 宣揚하고 地域住民의 矜持와 愛郷心을 鼓吹시켜 地域開發과 文化暢達에 寄與코자 함.

### 2. 方針

- 가. 郷土와 關聯된 文獻에 따른 資料를 蒐集하여 歷史의 時代順에 따른 自然과 人文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民俗 등을 體系의으로 整理 收錄한다.
- 나. 各種 文獻外에도 歷史와 傳統文化를 現場에서 調査 發掘하여 龍仁郡像을 定立, 地域社會開發을 爲한 參考 및 後世의 教育資料로 活用토록 한다.
- 다. 郡誌 發刊에 必要한 資料(民俗, 文化遺物, 遺蹟 등)는 郡廳을 中心으로 各級 機關을 通하여 汎國民的으로 蒐集한다.
- 라. 能力있고 經驗이 豊富한 人士를 委託하여 責任 編纂토록 한다.

### 3. 委員構成

#### 가. 郡誌編纂委員會 構成

㉠ 地域實情에 精通하고 史界에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人士로 郡誌編纂에 功獻할 수 있는 者로 '86.11.15 日字에 委囑 하였다.

#### ㉡ 構成內容

|          |           |
|----------|-----------|
| 顧問       | 4名        |
| 委員長      | 1名(郡守)    |
| 副委員長(常任) | 2名        |
| 常任委員     | 2名        |
| 委員       | 多數(20名內外) |
| 幹事       | 1名        |

#### 나. 執筆委員 構成

㉠ 郡誌編纂의 分野別 專門知識과 執筆 經驗이 豊富한 人士로 '86.11.28日 字에 委囑하였다.

㉡ 構成內容

委員長 1名

委員 20名 內外

#### 4. 群誌發刊에 따른 資料蒐集

용인군의 향토 역사와 맥락을 체계적으로 제조명할 군지발간을 위하여 편찬 및 집필위원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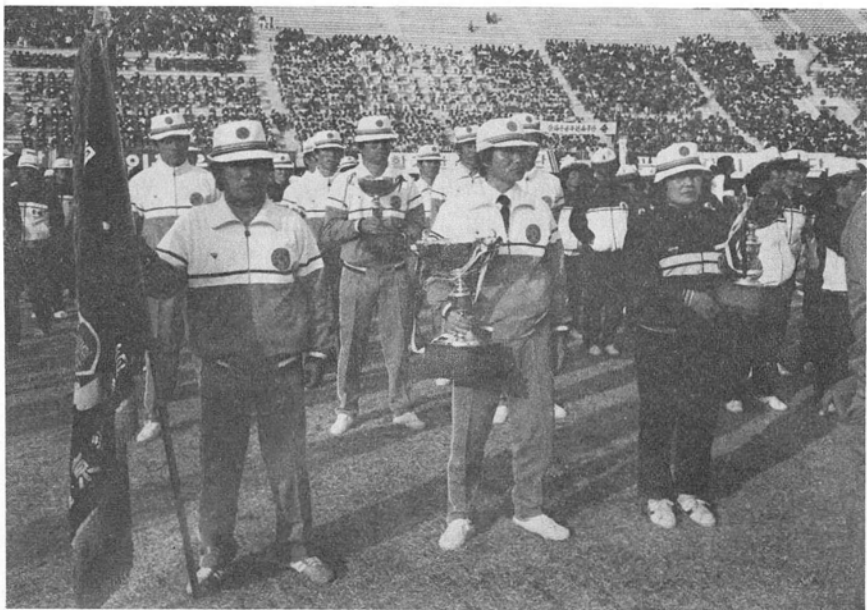
### —道民體典에서 龍仁郡綜合優勝—

지난 11月3日~5日 水原綜合運動場에서 開催한 第32回 京畿道體育大會에서 龍仁郡이 綜合優勝을 한 것은 京畿道體育大會史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쾌거였다. 이는 本郡의 名譽를 걸고 善戰한 選手 및 全任員이 愛郷과 和合의 精神으로 綜合優勝을 하게 된 것은 團合된 郡民의 意志와 體育關係者의 地대한 관심 속에 지난 9月 體育會任員陣을 再偏成하면서 힘을 發揮하기 始作하였다. 龍仁郡體育會長 朴柱敏 郡守는 이번 成果를 거울삼아 「하면 된다」는 自信心을 갖고 우리의 전력을 다시한번 加다듬어 경기 향상을 꾀하는 새로운 計劃과 覺悟로 1位 高수를 爲해 더욱 精進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날 11개 경기種目에서 得點現況은 다음과 같다.

#### 龍仁郡綜合優勝

|      |            |     |    |
|------|------------|-----|----|
| 육상   | 1位(4,692點) | 응원상 | 1位 |
| 배구   | 1位(1,738〃) | 질서상 | 2位 |
| 복싱   | 1位(1,734〃) | 입장상 | 3位 |
| 줄다리기 | 1位(2,733〃) |     |    |
| 테니스  | 2位(3,283〃) |     |    |
| 유도   | 2位(1,615〃) |     |    |
| 씨름   | 3位(2,860〃) |     |    |



## 용인군체육회 임원명단

| 직 위  | 성명  | 현 직        | 주 소              | 전 화     |
|------|-----|------------|------------------|---------|
| 회 장  | 박계민 | 용 인 군 수    | 용인읍 김량장리 286     | 2-2011  |
| 부회장  | 김원석 | 용인경찰서장     | " " 91           | 2-2222  |
| "    | 김현규 | 용인군교육장     | " " 254          | 2-2781  |
| "    | 김정길 | 대호산업(주) 사장 | 용인읍 유방리 519-1    | 32-2301 |
| "    | 김학규 | 의료보험조합이사장  | 용인읍 김량장리 300     | 32-2341 |
| 감 사  | 이병윤 | 윤명건설사장     | 용인읍 역북리 475-16   | 32-0577 |
| 전무이사 | 강명운 | 현대체육사      | 용인읍 김량장리 232-7   | 2-2616  |
| 이 사  | 조성철 | 해동산업(주) 사장 | 용인읍 유방리 522      | 2-2372  |
| "    | 장지환 | 태평양화학(주)   | 기흥읍 영덕리          | 33-1531 |
| "    | 강희도 | 조원관광(주)    | 기흥읍 보라리          | 8-2107  |
| "    | 심광섭 | 고려피혁(주)    | 용인읍 고림리          | 32-5901 |
| "    | 김홍배 | 대한은박지(주)   | 기흥읍 고매리          | 8-2421  |
| "    | 김학봉 | (주) 경 방    | 포곡면 삼계리 46       | 32-2681 |
| "    | 황상찬 | 일양약품공업(주)  | 기흥읍 하갈리          | 8-7851  |
| "    | 오용해 | 축협조합장      | 용인읍 김량장리 254-139 | 32-2331 |
| "    | 신선철 | 한동건설(주) 사장 | 용인읍 역북리          | 43-2351 |
| "    | 권영선 | 제일약품(주)    | " " 536-1        | 2-2378  |
| "    | 홍재구 | 용인선진사료     | " 김량장리 112       | 2-4910  |
| "    | 김종일 | 경기농장       | 원삼면 미평리 446      | 32-8071 |
| "    | 조명길 | 명진택시사장     | 용인읍 김량장리 172-4   | 32-3262 |
| "    | 강정대 | 축 산 업      | 포곡면 금어리          | 32-2278 |
| "    | 송광석 | 경인일보주재기자   | 용인읍 김량장리         | 2-2456  |
| "    | 최춘성 | 인삼경작       | 이동면 천리 235-17    | 2-2225  |
| "    | 박영숙 | 한은판지공업(주)  | 기흥읍 구갈리          | 8-6152  |
| "    | 최철  | 효신콘크리트(주)  | 모현면 일산리 116      | 2-6508  |
| "    | 박충근 | 한성외과원장     | 용인읍 김량장리 133-58  | 32-3811 |
| "    | 김창조 | 자연농원       | 포곡면 전대리          | 2-2191  |
| "    | 김학노 | 대화농원       | 용인읍 김량장리 92      | 2-2339  |
| "    | 한형석 | (주) 대연식품   | 용인읍 고림리          | 32-1665 |
| "    | 남기성 | 축 산 업      | " 남리             | 2-2813  |

## 서울대학교 동문회 창설

용인군내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출신 100여명이 신갈소재 고향촌에서 1986. 12.18일 창립 총회를 가졌다.

이날 임원을 선출하고 앞으로 용인군내 거주하는 서울대학교 출신 동문들의 친목과 향토문화 창달에 적극 참여하도록 결의하고 1차사업으로 용인관내 부와산과 관계가 깊은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의 저자인 김 성호 선생을 초청 강연회를 갖기로 하였다.

「임원」

- 교문 : 이 학린, 인 태운, 김 인홍, 김 재호, 이 경환.
- 회장 : 윤 주형
- 부회장 : 김 정근
- "      : 용 하중
- 사무국장 : 이 승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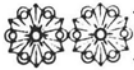
## — 태 성 동 문 미 전 —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태성 동문회는 제 3회 동문미전을 '86.12.20 ~ 23일까지 용인 문화원과 태성고등학교 후원으로 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그 동안 각각의 창작활동을 하면서 이번 전시회를 갖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 창작이 존중되는 동문미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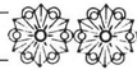
## ☀️ 용인어머니 합창단 자선음악회 개최 ☀️

지난 12월 26일 용인 어머니 합창단에서는 관내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가졌다.

어머니 합창단의 합창은 물론 서울시립합창단원중 약간 명과 한국일보사 주최 재미 한국인 음악 콩클대회에서 바이얼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김 미경양의 특별 찬조 출연이 있었다.



## 소년가장위로잔치



지난 12월 18일 용인 경찰서 주관으로 자연농원내에 자연 휴게소에서 대우산업 김 정길사장의 후원을 얻어 소년 가장 113세대중 108명이 참가한 년말 위로 잔치를 성대히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김 정길사장은 과거의 불우했던 소년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들을 껴려했다.

### 龍丘文化에 글을 기다립니다

本文化院에서 季刊誌로 發行되는 「龍丘文化」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 要領에 의거 여러분의 주옥같은 글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民俗, 文化祭等 발굴기
2. 愛鄉心 고취에 관한 산문
3. 鄉土文化 暢達을 위한 논문
4. 각 기관 및 學校, 一般社會團體等에 동정消息等
5. 他鄉生活手記, 내가 보는 龍仁像, 龍仁 發展을 爲한 提言
6. 文藝, 詩, 時調, 수필, 콩트 龍仁에 關한 사진等 資料
7. 可級的이면 200字 原稿紙를 使用하되 枚數는 제한없음

보내실 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문화원 용구문화 편집실 (전화) 2-2033

## - 재경용인군향우회 신년도 계획 -

'86년 8월 20일 발족한 在京龍仁郡鄉友會(會長 李 雄熙)는 신년도 사업으로 在京會員名簿錄을 발간하고 고향 용인의 소식을 계간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아직 미등록된 회원들이 본 회에 가입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장족의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연락처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40

대한일보 빌딩 1106호 전화 754-3014

## - 경기도 문화상 수상 -

'86년 12월 23일 실시한 제 35회 경기도 문화상 시상식에서 본군 출신 李仁寧(前 龍仁郡廳 공해방지계장, 본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씨가 학술부문에 서 영예의 경기도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李仁寧씨는 바쁜 공무중에도 틈틈히 시간을 내어 향토문화에 관한 책자(5권)를 편저하였으며 지방문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향토문화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었다.

## ※ 용인 문화원 소식 ※

### 용인문화원의 창설자 FLOYD SCHMOE 박사내원

미국 워싱턴주립 대학교수 FLOYD SCHMOE 박사는 지난 10월 20일 문화원을 방문하였다.

SCHMOE 박사는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 구호사업으로 전쟁 미망인 직업구호사업, 무료진료사업(X선 촬영) 결핵병환자치료, 구호주택 건설과 복구사업에 전념하다 1955.10월에 모든 사업을 고문 위원에게 인계하고 봉사사업만하다 본국으로 귀국하신 분이다.





- 동상 손준영 (양지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이기형 (양지국민학교, 병설유치원)  
 한민수 (운학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이정하 (보라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초등부 : (1 ~ 2 학년)

- 금상 : 이정숙 (남곡국민학교)  
 은상 : 류영희 (운학국민학교)  
 이경화 (서룡국민학교)  
 임찬양 (양지국민학교)  
 동상 : 이장선 (서룡국민학교)  
 이선희 (양지국민학교)  
 김지형 (양지국민학교)  
 강태현 (서룡국민학교)  
 정우진 (서룡국민학교)  
 정재훈 (남곡국민학교)

초등부 : (3 ~ 4 학년)

- 금상 : 손호석 (서룡국민학교)  
 은상 : 김양상 (서룡국민학교)  
 김민영 (양지국민학교)  
 김윤미 (제일국민학교)  
 동상 : 최옥진 (양지국민학교)  
 김주환 (서룡국민학교)  
 이금문 (서룡국민학교)  
 정은녕 (양지국민학교)  
 김문희 (보라국민학교)  
 홍기연 (보라국민학교)

초등부 : (5 ~ 6 학년)

- 금상 : 손철호 (서룡국민학교)  
 은상 : 김용수 (서룡국민학교)  
 진용일 (남촌국민학교)  
 동상 : 경유미 (양지국민학교)  
 정연숙 (서룡국민학교)  
 박정민 (운학국민학교)  
 이병일 (백암국민학교)

중등부

- 금상 : 김덕기 (태성중학교)  
은상 : 김해중 (태성중학교)  
박명철 (태성중학교)  
동상 : 이종호 (태성중학교)  
유권섭 (태성중학교)

고등부

- 금상 : 김은경 (용인상업고등학교)  
은상 : 남보연 (태성고등학교)  
김경애 (용인상업고등학교)

제 1 회 경로 효친 선양 글짓기 공모전

「입선자」

초등부

- 최우수 : 정승교 (제일국민학교)  
제목 : 경로우대증  
우 수 : 탁영숙 (기흥국민학교)  
제목 : 효녀 순영의 모습  
가 작 : 백지숙 (백봉국민학교)  
제목 : 양로원을 다녀와서

중등부

- 최우수 : 김경진 (송전중학교)  
제목 : 내가먼저라는 생각으로  
우 수 : 구향숙 (남사중학교)  
제목 : 불효자식

제 11 회 주부백일장

「입선자」

- 최우수 : 최순순  
제목 : 가을  
우 수 : 양봉련

- 제목 : 고향  
가 작 : 손영옥  
제목 : 고향  
가 작 : 박월득  
제목 : 고향  
가 작 : 이월금  
제목 : 가을  
가 작 : 김영숙  
제목 : 고향  
가 작 : 윤영호  
제목 : 고향  
가 작 : 변영숙  
제목 : 고향  
가 작 : 손 기  
제목 : 가을  
가 작 : 지정숙  
제목 : 가을  
가 작 : 김여선  
제목 : 가을

## 제 1 회 청소년 백일장

### 「입상자」

#### 초등부

- 최우수 : 신동선 (서룡국민학교)  
제목 : 하얀눈, 하얀토끼.  
우 수 : 김명희 (포곡국민학교)  
제목 : 양말  
가 작 : 장미진 (서룡국민학교)  
제목 : 작고 깨끗한 이곳에서

#### 중등부

- 최우수 : 백승희 (모현국민학교)

- 제목 : 바닷물  
우 수 : 강민자 (모현중학교)  
제목 : 작은일부터  
가 작 : 김현숙 (송전중학교)  
제목 : 조국은 나를 부른다.

## 제 8 회 서예대회

### 「입상자」

#### 초등부

- 금 상 : 김성태 (용인국민학교 6 - 9 반)  
은 상 : 장선자 (두창국민학교)  
동 상 : 류현경 (용인국민학교 6 - 7 반)

#### 중등부

- 금 상 : 김재수 (태성중학교 3학년)  
은 상 : 민광수 (태성중학교 3학년)  
동 상 : 서태용 (태성중학교 1학년)

#### 고등부

- 금 상 : 김승범 (태성고등학교 3학년)  
은 상 : 한건수 (태성고등학교 1학년)  
동 상 : 원효남 (용인상업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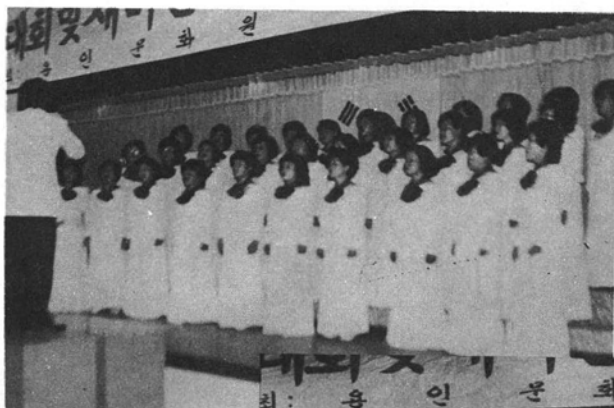
#### 일반부

- 금 상 : 이한순  
은 상 : 이현미  
동 상 : 박선호 (송국서예학원)  
장려상 : 김혁배 (송국서예학원)  
장려상 : 손 기  
장려상 : 양봉련

## 용인관내 어머니합창 경연 성대히 개최

본문화원이 주최한 제 1회 어머니합창 경연대회를 1986년 11월 14일 용인군청 대강당에서 용인교육청 김현규교육장을 비롯하여 담당지도교사 음악에 관심있는 어머니등 3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입상 합창단은 다음과 같다.

- 금 상 : 용인어머니 합창단
- 은 상 : 용인국민학교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 동 상 : 신갈중학교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 장려상 : 서릉국민학교 목련 어머니 합창단
- ” : 신갈국민학교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용인어머니 합창단



용인국민학교 새마을어머니합창단

'86년도 용인문화원 사업실적

| 시행일   | 사 업 내 용               | 대 상               | 비고 |
|-------|-----------------------|-------------------|----|
| 3.12  | 심장병 환자돕기 자선회 후원       | 일반                |    |
| 3.28  | 동양화 전시회               | //                |    |
| 3.28  | 내 고장의 얼 유물유적편 발간기념    | 1,000부 발간         |    |
| 3.30  | 어머니 합창단 연중 행사         | 일반                |    |
| 5.17  | 용문회지 발간 기념행사 후원       | 일반                |    |
| 6.14  | 제 1 회 용구 문화제          | 일반                |    |
| 7.29  | 제 5 회 미술작품 공모전        | 유치부, 초, 중, 고      |    |
| 9. 6  | 초, 중, 고생 피아노 경연대회(3회) | 초, 중등부            |    |
| 9.13  | 제 3회 중, 고교생 영어회화대회    | 중, 고등부            |    |
| 9.24  | 청소년 문화강좌              | 중, 고등부            |    |
| 9.26  | 경방용인실업고등학교청소년효행강좌     | 기업체               |    |
| 10.11 | 제 8 회 서예대회            | 초, 중, 고, 일반부      |    |
| 10.18 | 제 11 회 주부 백일장         | 주 부               |    |
| 10.28 | 제 1 회 청소년 백일장 공모      | 초, 중등부            |    |
| 10.29 | 제 2 회 효도관광            | 각 면 할머니           |    |
| 10.30 | 청소년 백일장 공모전(제 1 회)    | 초, 중등부            |    |
| 11.14 | 제 1 회 어머니합창경연대회       | 학교, 일반            |    |
| 11.28 | 종합시상식 개최              | 유치부, 초, 중, 고, 일반부 |    |

## 許 選 消 像

許選은 선조 25년인 만력 20년(1592) 10月初 3일에 태어났으며 자(字)는 사정(士精)이고 관(官)은 가선대부양근군수(陽根郡守)로써 양원군(陽原君)에 피봉되었다.

허계의 아들 許選消像은 그려졌을 당시 37세이었다. 조선중기 초상화의 定形이 존중된듯 特히 전신사출이나 포치안배에 있어서 부친인 허계의 초상과 동규를 보이고 있으며 양친 허씨유사에 의하면 허선이 37세되던 해 공을 세운후 73세 되던 해인 현종 6년(1665) 7월에 하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의 부음을 들은 현종은 친제조문(親製吊文)을 내리는 한편 조문관을 보내어 문상케하고 사직보전에 공이 컸음으로 그의 초상을 인각하여 문묘에 봉양하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는 은정이 베풀어졌다고 했다. 단서(丹書徽圈)에 왕가와는 한 집같이 지낼것이며 적장자에게는 세습하여 벼슬을 내리고 후죄를 짓더라도 벌하지 말라는 칙명이 내려졌다는 기록이 있다. 영전의 크기는 각각 173 × 103 cm의 건본설채이다.

## 편집후기

86年은 龍仁文化院이 그 어느해 보다도 분주했던 병인년을 마무리 하면서 「龍丘文化」第9號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郷土文化誌인 「龍丘文化」에 게재할 精神文化를 地方文化 發展에 도움을 주고자 所重한 資料와 精誠어린 玉稿를 投稿하여 주신 郷土文化研究委員과 文藝振興委員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분께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新年에도 地方文化暢達의 일환으로 發刊되는 「龍丘文化」를 爲해 좋은 글 보다 많이 投稿하여 주시기 仰請드립니다. 이번 第9號에는 본 文化院의 各種事業實績과 民俗놀이 「재둔음」編을 紹介하였으며 期間特輯으로 소개되던 言論界의 先覺者, 石儂柳瑾偏을 上中下偏으로 마무리하였다. 丁卯年 새해에도 「龍丘文化」를 더욱 새롭고 알찬 內容으로 躍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福된 希望의 새해를 맞이하시기 祈願합니다. (睦)

### 용 구 문 화 제 9 호

1986년 12월 25일 인쇄

1986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처 : 용인문화원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이 응 준

인쇄처 : 흥익문화인쇄사 전화 : 274-6155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 농민의 요람 민족의 뿌리



농협중앙회는 전국 400여 국내 최대의 온라인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농협통장만 있으면 컴퓨터로 입·출금이 즉시 처리될 뿐더러 시중은행과 똑같이 각종 은행업무(온라인 예금, 대출, 송금, 은행신용카드 등)를 취급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신갈지점

지점장 노 용 득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전화 수원 8 - 2084 ~ 6

